

傷寒論 三陽三陰病의 發生과 變化에 대한 고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張祐彰*

A Study on Outbreaks and Changes of Samyang-Sameum(三陽三陰) Disease of Sanghallon(傷寒論)

Dep.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Kyung Hee University

Jang Woo-Chang

The Samyang-Sameum(三陽三陰) is the movement form peculiar to the cosmic dual forces. Since Byunggi(病氣) along with the Gyungkki(經氣), The Samyang-Sameum(三陽三陰) is the standard for a diagnosis of a disease's outbreak and change.

Any one of The Samyang-Sameum(三陽三陰) can cause a disease in a Gyungkki(經氣) because each and every human being has different Gyungkki(經氣). And, a disease may outbreak by any one of Wind-Cold-Warmth-Heat(風寒溫熱). Guiding principles of the six Meridians(六經提綱) is set to diagnose which one of the Gyungkki(經氣) causes a disease.

Sanghallon(傷寒論) shows several measures to diagnose the lapse of a disease at the beginning stage of external affection(外感) by Wind-Cold(風寒). It is most serious when the Jeongyung(傳經) symptom appears within 6 to 7 days after a disease outbreak since it indicates the exhaustion of true Eum(眞陰). It means the lapse of a disease that formation of dry stool(燥尸) by fast Jeonsok(轉屬) to Yangmyeong(陽明) after a Taeyang(太陽) is diseased.

It also means that a position of disease is worsening by a sticking phase of disease when Yipeum(入陰) symptom after any one of Samyang-Sameum(三陽三陰) is diseased

Key words: Sanghallon(傷寒論), Samyang-Sameum(三陽三陰), Gyungkki(經氣)

I. 緒論

『傷寒論』을 읽으면서 총론의 결여에 곤란함과 아쉬움을 느낀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傷寒例」라고 하여 흡사한 글이 머리에 붙어 있으나, 본문과 모순되는 것들이 많아 보아도 시원치 못하기는 마찬가지이고, 諸家の 주석들을 보아도 대체적인 열

개를 파악하기에는 역시 미흡함을 느꼈다.¹⁾

張仲景이 직접 『傷寒論』의 총론을 썼다고 하면 분명히 陰陽에서 시작하여 三陰三陽으로 펼쳤을 것이다. 본문이 '太陽之爲病'하는 말로 시작되지 않는

* 교신저자: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 961-9183, jangchang@khu.ac.kr

1) 柯琴의 傷寒論翼은 이 방면의 결작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고찰은 이 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가? 그런데 요새 유행하는 湯證 위주의 학풍에서는 웬일인지 陰陽을 도외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너무나도 유명한 桂枝湯 조문을 놓고 생각해 보자. 太陽中風이란 말이 없어도 脈證만 잘 간추리면 계지탕을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어찌 책에 쓰여진 대로 병드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傷寒論』을 펼치기만 하면 온통 陰陽이 가득함을 볼 수 있다. 太陽病, 少陰病 등등 三陽三陰의 병명에서부터, ‘病發於陰, 病發於陽, ‘陽去入陰’ 하는 병의 발생을 설명하는 말과, 사기의 성질을 표현하는 風寒溫熱 그리고 병의 구체적인 성질과 위치를 파악하는 表裏, 寒熱, 虛實의 말들에 이르기까지 『傷寒論』의 눈은 한시도 음양의 변화를 떠나지 않는다. 대체 太陽이란 말을 모르고서 이리저리한 데에 계지탕이 두루 쓰이는 까닭을 어떻게 제대로 알겠으며 병이 장차 어떻게 변화해 갈지 무슨 수로 짐작하겠는가?

기간에 三陰三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나마 經氣가 陰陽운동을 하는 형식을 이해하게 되었다.²⁾ 이제는 三陽三陰에서 어떻게 병이 일어나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필요에 따라, 이 고찰은 三陽三陰이 사기를 받아 병을 일으키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대략적으로나마 추적해 보고자 한다.

제1장은 『傷寒論』에 있어 傷寒과 三陰三陽의 의의에 대한 논의이며, 제2장은 三陽三陰이 각기 寒을 받아 발병하는 현상에 대한 논의이며, 제3장은 傷寒 이후 病勢의 경중과 관련된 논의이다. ‘三陽三陰病의 발생과 변화’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寒에 의한 병 가운데 일부만을 고찰한 것에 불과함을 밝힌다. 이것은 물론 傷寒을 위주로 기술되어 있는 『傷寒論』 자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2) 이 방면에서는 박찬국의 연구를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된다.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三陰三陽’이라는 제명의 논문 모음집이 복사물로 유포되고 있다. 필자의 三陰三陽에 이해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II. 本論

1. 傷寒과 三陰三陽³⁾

1) 傷寒과 雜病

『傷寒論』의 400여 조문⁴⁾들은 冒頭語⁵⁾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a): 傷寒으로 모두된 것들.

(b): 發汗後, 下之後 등 誤治 이후의 證治와 관련된 것들.

(c): 太陽病, 陽明病 따위의 三陽三陰病으로 모두된 것들.

(d): ‘病’, ‘病人’ 또는 ‘嘔家’, ‘瘡家’, ‘淋家’ 등으로 모두된 것들.

이것은 『傷寒論』의 저술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⁶⁾

대체로 傷寒이 아닌 것은 모두 雜病이다. 雜病은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六經을 세워서 나누어 맡게 했으며, 傷寒의 와중에 雜病이 끼어드는 경우가 매우 흔하여 내증과 외증이 섞이고 허증과 실증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에 傷寒과 雜病을 합참했다.⁷⁾

(a)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傷寒으로 시작된 병들을 말하며, (d)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병이 雜病으로 시작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문의 중

3) 經氣의 운동을 말할 때에는 陰에서 출발하므로 三陰三陽으로 쓰고, 傷寒의 관점에서 보면 陽이 먼저 받으므로 三陽三陰으로 쓰고자 한다. 이 고찰에서 三陽三陰은 六經과 동일한 의미로 쓴다. 단, 經氣라는 용어의 차별을 위해 앞의 용어를 先用했다.

4)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不可發汗 등등, 일반적으로 王叔和의 加筆이라고 보는 조문들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三陽三陰篇의 조문들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5) 각 조문들의 머리에 모자 씌우듯 없어진 말들을 말한다.

6) 張機. 仲景全書. 大北. 集文書國. 中華民國 72년, p. 20. “爲傷寒雜病論合十六卷, 雖未能盡愈諸病, 庶可以見病知源.”

7)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 159. “蓋傷寒之外皆雜病, 病名多端, 不可以數計, 故立六經而分司之; 傷寒之中最多雜病, 內外挾雜, 虛實互見, 故將傷寒雜病而合參之. 正以合中見潤澤之清濁, 此扼要法也.”

간에 보이는 結胸, 藏結, 陽結, 陰結, 癆熱, 發黃, 熱入血室, 譫語, 如狂 등은 傷寒의 와중에 雜病이 끼어든 경우로 볼 수 있다.

風雨寒熱을 外感하여 병이 되려면 반드시 正虛가 선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兩虛가 相得하여 邪를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으며, 일단 邪氣가 들어오면 邪氣와의 相爭에 의해 正氣가 더욱 부족해지게 되어 병이 점점 身形의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다.⁸⁾ 때문에 평소 속에 병을 몸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外感에 의해 正氣의 소모가 더욱 빨리 진행되어 大病을 이룰 수 있다. 특히나 寒은 陰邪로서 人身을 護衛하는 陽氣를 해치므로 風寒暑濕 가운데 가장 쉽게 外感을 유발할 수 있으며, 寒을 外感한 상태에서 素病이 섞여들면 병이 잘 낫지 않고 더러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傷寒論』은 外感 중에서도 寒을 위주로 입론되었으며, 外感의 변화와 악화를 초래하는 素病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2) 傷寒과 '發於陽發於陰'

『傷寒論』에서 冒頭語로 쓰인 '傷寒'은 '傷於寒'의 뜻으로서,⁹⁾ '寒'은 '風寒'을 겸해 말한 것이다.

때문에 風은 모든 병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風寒이 사람에게 客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털이 곤두서고 피부가 딱딱 열이 나게 합니다(是故風者, 百病之長也, 今風寒客於人, 使人毫毛畢直, 皮膚閉而爲熱).¹⁰⁾

여기서 風寒은 우리말로 '찬바람'과 정확하게 같은 뜻이다.¹¹⁾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外感은 惡寒과 發熱

로 시작된다. 溫熱에 의한 外感이라면 惡寒없이 發熱로만 시작되지만, 風寒에 의한 外感은 발열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惡寒으로 시작된다. 太陽傷寒에서 '必惡寒'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¹²⁾ 風寒에 의한 外感이 惡寒으로 시작되는 것은 병의 근본이 陽氣의 손상에 있기 때문이다. 惡寒이 陽氣의 손상을 뜻하는 징표로서 병의 본이라면, 發熱의 遲晚은 寒邪에 대응하는 陽氣의 盛衰가 표현되는 것으로서 병의 標이다.

발열과 오한이 있는 것은 병이 양에서 일어난 것이고, 발열없이 오한만 있는 것은 병이 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病有發熱惡寒者, 發於陽也; 無熱惡寒者, 發於陰也.)¹³⁾

寒에 상한 이후 바로 熱이 오르는 것은 陽氣가 즉각적으로 寒氣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바로 熱이 오르지 않는 것은 陽氣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음을 뜻한다. 크게 보았을 때, 發於陽은 병이 陽熱로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發於陰은 陰寒으로 진행될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3) 傷寒의 受病과 經氣

이 고찰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傷寒 이후 三陽三陰이 邪氣를 받아 병을 일으키는 고유의 경로와 양식이 존재한다. 傷寒이 병의 원인이라면 太陽病, 陽明病 등의 三陽三陰病은 각 經氣가 병을 받았을 때 나타내는 고유의 脈症이다.

한에 상하고 첫날 태양이 병을 받습니다. 만일 맥이 안정되면 병이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傷寒一日, 太陽受之, 脈若靜者, 爲不傳).¹⁴⁾

太陽을 중심으로 보이는 '受'와 '傳'의 용어에 주목하라. '受'는 태양이 寒을 받아 太陽病이 되는 것을 말하고, '傳'은 태양이 병을 받지 않고 뒤로 邪氣를

니다. 처음에는 表로 風寒을 맞습니다(凡傷寒之病, 多從風寒得之, 始表中風寒)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86. "風雨寒熱, 不得虛, 邪不能獨傷人, 卒然逢疾風暴雨而不病者, 蓋無虛, 故邪不能獨傷人, 此必因虛邪之風, 與其身形, 兩虛相得, 乃客其形.(풍우한열은 허를 얻지 못하면 단독으로 사람을 상하지 못합니다. 급작스럽게 질풍폭우를 만나고도 병이 들지 않는 사람은 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 단독으로 사람을 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허로 인한 사풍이 신형과 함께하여, 외내의 허가 서로 만나야 사가 신형에 객합니다.)"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116. "人之傷於寒也, 則爲病熱"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74.

11) 張機. 仲景全書. 大北. 集文書局. 中華民國 72年. p. 102. 傷寒例에서 "대체로 傷寒의 병은 주로 風寒으로부터 연습

12) 蕭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179.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

13) 蕭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189.

14) 蕭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181.

넘김을 뜻한다. 이것은 병의 발생과 변화에 있어 經氣가 주체가 됨을 보여준다. 邪氣는 아무 곳에서나 병을 일으키지 않고 經氣가 허한 곳, 바로 그곳으로 들어와 병을 일으킨다. 邪氣가 ‘손님(客)’이라면 손님을 받아들이는 주인은 經氣이다.

邪氣는 항상 四時之氣를 따라 몸으로 들어와 머무릅니다. 병의 변화로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나 반드시 經氣를 따라 변화합니다.(邪氣者, 常隨四時之氣血而入客也. 至其變化, 不可爲度, 然必從其經氣)¹⁵⁾

陰陽변화에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는데 그것의 이름이 三陰三陽이다. 陰陽은 각기 셋으로 흩어졌다 하나로 모이는 離合의 변화를 통해 人身을 一周하면서 表와 裏로 形과 氣를 상성한다. 經氣는 陰陽氣가 각기 셋으로 흩어졌을 때 나타내는 三陰三陽, 陰陽太少의 氣이다.

“陰陽雩重雩重, 積傳爲一周, 氣裏形表而爲相成也.”¹⁶⁾¹⁷⁾

經氣가 一陰을 마치고 二陰으로, 二陰을 마치고 三陰으로, 三陰을 마치고 一陽으로, 一陽을 마치고 二陽으로, 二陽을 마치고 三陽으로, 면면히 周旋하며 裏로 氣를 낳고 外로 形을 이루는 운동이 ‘傳’이다. 經氣가 一周하는 순서로 말하면 厥陰에서 시작하여 太陽에서 마치고, 三陽三陰의 高下로 말하면 太陽은 三陽으로서 最高位에 자리하고 厥陰이 一陰으로서 가장 아래에 자리한다. 때문에 外感 사기는 첫날 太

陽이 받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太陽이 病을 받지 않으면 邪氣는 經氣를 거슬러 陽明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4) 三陰三陽의 開闔樞와 六經提綱

三陰三陽 운동의 본체인 混融한 一氣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운동하면서 나타내는 陰陽太少의 변화는 開闔樞의 상으로 드러난다. 『傷寒論』은 「陰陽離合論」의 開闔樞가 지니는 이 핵심적인 뜻을 이해하여, 질병현상을 經氣의 변동 차원에서 포착하고자 했다. ‘太陽之爲病’ 따위의, 이른바 六經提綱이 그것이다. 風寒을 外感한 이후의 변화는 表에서 裏에 이르기까지, 寒熱이 相傳하고 虛實이 交代되며 素病이 挾雜하여 실로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六經提綱은 질병현상에서 관찰되는 表裏寒熱虛實의 변화를 통해 三陰三陽 開闔樞의 변동을 파악하는 방법에 다름 아니다.

「陰陽離合論」에 의하면 ‘太陽은 開’이므로 表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脈浮惡寒頭項強痛’으로 太陽病의 提綱을 삼았다. 陽明은 闔’이므로 裏를 주관한다. 그러므로 ‘胃家實’로서 陽明病의 提綱을 삼았다. 少陽과 少陰은 樞’이므로 提綱 역시 半表半裏證 위주이다. 少陽은 陽樞로서 주관하는 부위가 裏 보다는 表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口苦咽乾目眩’의 半表證을 提綱으로 삼았고 胸脅의 硬痛처럼 半裏에 속하는 病證은 提綱에서 제외시켰다. 少陰은 陰樞로서 주관하는 部位가 表보다 裏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欲寐不寐欲吐不吐’의 半裏證으로 提綱을 삼았고 ‘舌乾口燥’ 등의 半表證은 提綱으로 들이지 않았다. 陽明과 마찬가지로 三陰 역시 모두 裏를 주관하지만 陰과 陽은 位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하는 病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陽明은 裏의 陽證을 주관하고 陽道는 實하므로 胃實證은 陽明에 속하는데 비하여, 太陰은 裏의 陰證을 주관하고 陰道는 虛하므로 自利證은 太陰에 속한다. 또 太陰은 開인 동시에 陰 가운데에서도 至陰이므로 裏寒自利證을 주관하는데 비하여 厥陰은 闔인 동시에 陰 가운데 陽이므로 裏熱氣逆證을 주관한다. 少陰은 陰樞이므로 陽樞인 少陽이 그렇듯이 주관하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29.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9.

17) 박찬국. 황제내경소문주석. 서울. 집문당. 2005. p. 157. 난해한 말이므로 잠시 해설을 빌리기로 한다. “음양중중은 음하고 양하는 운동이 끊없이 반복된다는 뜻이다. 적은 음하고 양하는 운동이 쌓이는 것을 말한다. 적은 일음일양을 다하면 전하여 이음이양을 하고, 이음이양을 마치면 전하여 一陰, 一陽을 하고, 一陰, 一陽을 마치면 다시 전하여 일음일양을 한다는 뜻이다. 적전위일주는 이러한 음하고 양하는 운동이 쌓여 전하여, 一陰, 一陽을 모두 거쳐서 음하고 양함을 한 번 두루 하였다는 뜻이다. 기리형표의 기는 체내의 양기이며 형은 형체이다. 이는 기가 근본이 되어 체내에서 운행하며 형체는 겉에서 기를 감싸 영위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유지해 준다는 말이다.”

는 病證에 있어 寒熱과 虛實이 정해지지 않는다.¹⁸⁾

2. 三陽三陰의 受病

1) 風寒溫熱과 ‘發於陽 發於陰’

風寒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最高位에 자리하여 陽의 開로서 表를 주재하는 太陽이 陰邪인 風寒을 먼저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經氣의 편차가 다르고 邪氣는 風寒溫熱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三陽三陰 어느 經氣도 風寒溫熱을 받아 병이 될 수 있다.¹⁹⁾

‘寒傷形, 熱傷氣’²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같은 外感이라도 陽氣가 부족한 사람은 風寒에 의해 형을 상하여 表寒으로 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陰氣가 부족한 사람은 溫熱에 의해 기를 상하여 裏熱로 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寒이 極하여 熱로 변하면 裏熱이 발생하여 陰이 손상을 받게 되며, 熱이 極하여 寒으로 변하면 表寒이 발생하여 陽이 손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병의 변화는 복잡다단하다고 할 수 있다.²¹⁾

「熱論」에 보이는 ‘一日太陽,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少陰, 六日厥陰’의 순서는,²²⁾ 전통적으로 寒에 상한 이후 邪氣가 이동해가는 순서로 이해되어 왔다. 邪氣는 經氣를 따라 이동하므로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을, 傷寒이 언제나 太陽病으로 출발하여, 太陽病이 陽明病으로, 陽明病이 少陽病으로 厥陰까지 연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三陽三陰 가운데 하나가 선택적으로 邪氣를 받아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寒은 陽氣를 해치는 邪氣이고 太陽은 巨陽이므로 外感 寒氣에 먼저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傷寒論』에는 太陽病으로 冒頭된 조문들이 가장 많다. 그러나 太陽이 受病한 이후 발병의 양식은 邪氣의 형태에 따라 일정치 않으며 발병 이후의 변화로 말해도 素病의 挾雜에 따라 복잡다단하다. 실제로 太陽病에는 中風, 溫病, 濕痺, 熱病 등이 따로 立論되어 다양한 발병 양식을 구별하고 있으며, 太陽病이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정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陰陽의 虛實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傷寒, 中風의 分形과 ‘病發於陽, 病發於陰’의 구별은, 발병 초기에 환자의 陰陽 盛衰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太陽傷寒과 太陽中風이 必惡寒과 卽發熱로 구별되듯이, 三陽三陰病 모두에서 언급되는 中風은, 三陰病의 경우에도 卽發熱자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病發於陽, 病發於陰’도 三陽三陰病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18)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 162-163. “陰陽離合論 太陽爲開 故仲景以之主表. 而以脈浮惡寒頭項強痛爲提綱. 立論與熱病頗同. 而立意自別. “陽明爲闔”, 故以之主裏. 而以胃實爲提綱. 雖有目痛鼻乾等症. 而所主者不在是. 少陽爲樞. 少陰亦爲樞. 故皆主半表半裏症. 少陽爲陽樞. 貴重在半表. 故以口苦目眩爲提綱. 而不及胸脅痛硬. 少陰爲陰樞. 其欲味不味. 欲吐不吐. 亦半表半裏症. 雖有舌乾口燥等症. 而不及提綱. 歸重在半裏也. 豈惟陽明主裏. 三陰皆主裏. 而陰陽異位. 故所主各不同. 陽明主裏症之陽. 陽道實. 故以胃實屬陽明. 太陰主裏症之陰. 陰道虛. 故以自利屬太陰. 太陰爲開. 又爲陰中之至陰. 故主裏寒自利. 厥陰爲闔. 又爲陰中之陽. 故主裏熱而氣逆. 少陰爲陰中之樞. 故所主或寒或熱之不同. 或表或裏之無定. 與少陽相似也.”

19)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p. 258-259. “夫風寒暑濕之傷人. 六經各有所受. 而發見之脈不同. 或脈同而症異. 或脈症皆同而主症不同者. 此經氣之有別也. 蓋六經分界. 如九州之風土. 人物雖相似. 而衣冠飲食言語性情之不同. 因風土而各殊. 則人身表裏之寒熱虛實. 實亦皆因經氣而異矣.(일반적으로 風寒暑濕 邪氣가 인체를 손상함에 있어서 六經 각각이 감수하는 邪氣가 달라 서로 다른 脈症이 발현된다. 경우에 따라서 脈은 같은데 症이 다르거나 脈과 症이 다 같은데 主症만 다른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람마다 ‘經氣’가 다르기 때문이다.)”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3.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3.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116.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腰脊強.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於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 三日. 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絡於耳. 故胸脇痛而耳聾. 三陽經絡皆受其病. 而未入於藏者. 故可汗而已. 四日. 太陰受之. 太陰脈布胃中絡於噎. 故腹滿而噎乾. 五日. 少陰受之. 少陰脈貫腎絡於肺. 繫舌本. 故口燥舌乾而渴. 六日. 厥陰受之. 厥陰脈循陰器而絡於肝. 故煩滿而囊縮. 三陰三陽. 五藏六府. 皆受病. 榮衛不行. 五藏不通. 則死矣.”

합당할 것 같다. 예를 들어 陽明病의 경우 첫날 惡寒이 보이는 경우는 陽明病發於陰에 해당할 것이다.²³⁾ 그리고 少陽病의 경우 '傷寒'으로 冒頭된 조문은 少陽病發於陰에 해당할 것이며,²⁴⁾ 少陽中風은 少陽病發於陽에 해당할 것이다.²⁵⁾ 三陰의 中風은 三陰病發於陽에 해당할 것이다.²⁶⁾

2) 三陽의 受病과 三陽病 提綱

'太陽病으로, 발열이 있거나 발열이 없거나 반드시 몹시 춥고 몸이 아프며 구역하고 맥이 尺寸으로 다緊한 것을 傷寒으로 정의한다(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²⁷⁾

太陽이 寒을 받아 병이 일어난 경우는 太陽傷寒으로 정의된다. 太陽은 三陽의 開로서 表를 주재하므로 表證을 위주로 提綱이 설정되어 있다. '脈浮, 頭項強痛, 而惡寒'²⁸⁾이 그것이다. 太陽傷寒은, 太陽提綱과 비교해 보았을 때, 陽開가 고장난 象에 현저한 寒의 象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²⁹⁾

太陽이 寒을 받지 않으면 邪氣가 陽明이나 少陽으로 전달된다.

한에 상하고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양명증이나 소양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傷寒

二, 三日, 陽明, 少陽證不見者, 爲不傳也)³⁰⁾

陽明이 寒을 받아 병이 일어나면,

병을 얻은 첫날에 발열 없이 오한만 있는 사람이 있으니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병을 얻은 첫날에 오한이 있을 것이지만 얼마 안가서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자한이 나면서 오열하게 됩니다. 오한이 왜 저절로 없어집니까? 양명은 중앙에 자리하니 토입니다. 이곳은 만물이 회귀하는 곳이어서 한이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오한이 있더라도 둘째 날이 되면 자연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양명이 병든 것입니다.(問曰: 病有得之一日, 不發熱而惡寒者, 何也? 答曰: 雖得之一日, 惡寒將自罷, 卽自汗出而惡熱也. 問曰: 惡寒何故自罷? 答曰: 陽明居中, 土也, 萬物所歸, 無所復傳. 始雖惡寒, 二日自止, 此爲陽明病也.)³¹⁾

陽明傷寒이다. 첫날의 惡寒은 병이 '傷寒'으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둘째날의 惡熱과 汗出은 三陽의 闔으로서 陽明의 經氣가 지나는 고유한 象을 보인다. 惡寒이 없어지는 것은 太陽證이 '自罷'했음을 뜻한다. 이것은 太陽이 寒을 받지 않고 陽明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만일 둘째날이더라도 惡寒이 사라지지 않고 太陽提綱證이 출현하면 그것은 太陽病이다. 陽明이 寒을 받아 陽明外證으로 발병했다면, 이때는 이미 傷寒이 熱病으로 변한 것이다.

陽明病은 '傷寒'으로 인해 表에서 병이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寒으로 말하면, 胃中에서 寒氣가 일어난 '中寒'³²⁾이 있고, 熱로 말해도 陽明 本經의 熱이 陽明의 裏인 胃府로 빠지거나, 太陽과 少陽에서 表寒이 化熱하여 陽明의 胃府로 轉屬한 三陽 陽明³³⁾도 있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陽明은 三陽의 闔

23)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613. "問曰: 病有得之一日, 不發熱而惡寒者, 何也? 答曰: 雖得之一日, 惡寒將自罷, 卽自汗出而惡熱也."

24)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56. "傷寒, 脈弦細, 頭痛, 發熱者, 屬少陽. 少陽不可發汗, 發汗則譫語. 此屬胃, 胃和則愈, 胃不和則煩而悸."

25)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54. "少陽中風, 兩耳無所聞, 目赤, 胸中滿而煩者, 不可吐下, 吐下則悸而驚."

26)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 770, 797, 883. "太陰中風, 四肢煩疼, 陽微陰澁而長者, 爲欲愈. 少陰中風, 脈陽微陰浮者, 爲欲愈. 厥陰中風, 脈微浮, 爲欲愈; 不浮, 爲未愈."

27)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179.

28)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174.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

29) 尺寸 모두 緊한 脈象과 신체의 疼痛은 寒에 의한 表陽의 抑鬱을 보여주며, 嘔逆은 寒이 심하여 裏陽이 동요됨을 보여준다.

30)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183.

31)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 613, 615.

32)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 624, 625. "陽明病, 若能食, 名中風; 不能食, 名中寒. 陽明病, 若中寒, 不能食, 小便不利, 手足澀然汗出, 此欲作固瘕, 必大便 初硬後溏. 所以然者, 以胃中冷, 水穀不別故也."

33)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605. "問曰: 病有太陽陽明, 有正陽陽明, 有少陽陽明, 何謂

으로서 裏의 陽證을 주재하므로 胃家實로 提綱이 설정되어 있다. 때문에 陽明이 外로 寒을 받았을 때를 위해 陽明外證을 별도로 보여 주었다.³⁴⁾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胃家實’은 陽明外證을 포함하는 말로 볼 수 있다. 陽明의 鬪이 表部에서 寒氣에 막히면 外證이 나타나고, 裏部에서 寒氣에 막히면 大便乾結이 나타난다. 이것을 총칭하는 말이 三陽의 鬪이 속에서 병들어 熱實을 이루었음을 표현하는 胃家實이다.

한편 太陽傷寒이건, 少陽傷寒이건, 陽明傷寒이건 초기에 寒이 풀리지 않아 裏陽이 鬱廢되면 속에서 邪熱이 발생되는데, 이때 邪熱의 종착지는 陽明의 裏인 胃府이다.

양명은 중앙에 위치하니 도입니다. 중앙은 만물이 회귀하는 곳이므로 다시 전할 곳이 없습니다.(陽明居中, 上也, 萬物所歸, 無所復傳.)³⁵⁾

이 단계에서 邪熱의 結聚를 풀지 못하면 津液의 손상이 극에 달하여 眞陰이 위태롭게 된다. 때문에 傷寒으로 시작되어 熱로 변한 傷寒熱病³⁶⁾의 死證은 모두 陽明病의 단계에서 보인다.

陽明이 寒을 받아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 邪氣가 少陽으로 전달된다.

한에 상했는데, 맥이 현세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면 소양에 속합니다. 소양병은 발한하면 안됩니다. 발한하면 섬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양의 위병에 속합니다.(傷寒, 脈弦細, 頭痛, 發熱者, 屬少陽. 少陽不可發汗, 發汗則譫語, 此屬胃.)³⁷⁾

이것은 少陽傷寒의 첫날 상황이다. 2-3일이 되면 少陽의 裏陽이 鬱閉되어 表寒과 交爭하면서 寒熱往

來의 象이 나타날 것이다. ‘屬少陽’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때 이미 少陽提綱 ‘口苦, 咽乾, 目眩’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少陽은 陽樞로서 表로 나오는 陽氣를 조절하기 때문에 寒에 상하면 太陽傷寒과 흡사하게 惡寒, 頭痛, 發熱의 표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太陽病이라면 脈의 象이 浮해야 하는데, 이것은 脈이 弦細하여 一陽의 象을 나타낸다. 그리고 ‘屬太陽’이라면 頭痛에 項強이 수반될 것이다. 이것이 少陽傷寒의 外證이라면, 少陽病에는 他經에서 少陽의 裏部로 병이 轉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 脈沈緊’의 少陽半裏證이 다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³⁸⁾ 寒熱往來를 除한 諸症은 少陽의 裏證이다.

少陽은 三陽의 樞로서 陽氣의 開闔을 조절하고, 膽은 전신의 氣機를 조율하므로 內外로 병을 받는 경로가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少陽이 병을 받으면 입, 목구멍, 눈 등 藏府之氣가 출입하는 상부의 공규로 樞機가 不利한 象이 나타난다.

3) 三陰의 受病과 三陰病 提綱

三陽 가운데 一陽이 受病하지 않으면 4일 이후 三陰 가운데 一陰이 受病한다.

한에 상하고 셋째날은 사기가 삼양을 돌기를 마치어, 三陰이 병을 받는 시점입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먹어도 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三陰이 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傷寒三日, 三陽爲盡, 三陰當受邪. 其人反能食而不嘔, 此爲三陰不受邪也.)³⁹⁾

‘傷寒’은 惡寒임을 말했다. 별다른 脈症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3일 내에 惡寒 외에 發熱을 위시한 三陽의 顯證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三陽에서 열이 나면서 어느 一陽이 受病했다면 寒이 三陰으로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太陽이 受病했으면 첫날에 發熱이 나타났을 것이고, 陽明이 受病했으면 二日에 身

也? 答曰: 太陽陽明者, 脾約是也; 正陽陽明者, 胃家實是也; 少陽陽明者, 發汗, 利小便已, 胃中燥煩實是也.”

34)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612. “問曰: 陽明病, 外證云何? 答曰: 身熱, 自汗出, 不惡寒, 反惡熱也.”

35)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615.

36) 이것은 애초에 병이 溫熱로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 때문에 ‘傷寒熱病’이라고 하였다. 熱論에서 말하는 熱病이나 諸病源候論 등 고서에서 熱病이라고 말한 것들이 이런 부류이다.

37)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56.

38)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59. “本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 尚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39)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64.

熱이 나타났을 것이며, 少陽이 受病했으면 첫날에 發熱과 脈弦細가 나타났을 것이다. 三日토록 으슬으슬 추운 것 말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던 중에 嘔吐가 심해져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三陰 가운데 一陰이 병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한다. 惡寒이 表陽의 손상을 보는 대표적인 표적이라면, 嘔吐는 裏陽의 손상을 보는 대표적인 표적이다. 때문에 三陰病 提綱에는 모두 嘔吐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 4일에 太陰이 受病하면 嘔吐下利가 나타날 것이고, 5일에 少陰이 受病하면 欲吐不吐가 나타날 것이고, 6일에 厥陰이 受病하면 食則吐衄가 나타날 것이다.

4일은 太陰이 受病하는 期日이다.

한에 상했는데 맥이 부하면서 완하고 손발이 따뜻하면 병이 태음과 연계된 것입니다. 태음이 수병했다면 응당 몸에 황달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만일 소변이 자리하면 황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에 상하고 7-8일에 이르러 갑자기 심중에 번열을 느끼면서 하루 십여 차례 하리를 하더라도 하리가 자연히 멎을 것입니다. 비가 실해지면 부에는 의당 제거되기 때문입니다.(傷寒, 脈浮而緩, 手足自溫者, 繫在太陰. 太陰當發身黃;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 至七八日, 雖暴煩下利日十餘行, 必自止, 以脾家實, 腐穢當去故也.)

이것은 太陰傷寒 첫날의 정황으로서, 첫날에 浮緩脈과 手足自溫는 太陰의 經氣가 表部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緩은 脾의 脈象이며, 手足은 脾가 주재하는 身形의 部分이다. 手足의 熱은 太陰의 經氣가 寒과 交爭함을 뜻한다. 黃疸은 아마 4일 경에 보일 것인데, 太陰의 經氣가 外寒을 이기지 못하고 속에서 鬱廢되어 濕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太陰傷寒 이후 小便이 自利한다면 이것은 太陰 經氣가 건재함을 뜻한다. 때문에 三陰三陽이 一周하는 期日인 7일 이후로 太陰의 經氣가 회복되면 병이 자연히 쇠할 것이다. 7일에 보이는 暴煩과 下利는 太陰의 經氣가 회복되어 경락에서 발생한 열이 상부로 나옴과 脾家가 충실해져 濕熱이 아래로 배설됨을 뜻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본래 陽氣가 偏盛하면 陽明으로 돌아오는 經氣가 과다해지므로 陽明이 太陰의 熱을 견내 받아 大便硬證이 이루어질 것이다.⁴⁰⁾

이 예는 '繫在'라고 했듯이 엄밀히 말하면 병이 원래 陽明과 太陰의 經絡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병증 역시도 吐利의 陰證이 아니라 黃疸의 陽證으로 나타나고 있다. 太陰의 裏는 脾로서, 脾는 陰中之至陰이기 때문에 外에서 온 寒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內生한 寒을 받아 병드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傷寒이라기 보다 雜病에 가까울 것이다.

공하에 의하지 않고 자연히 하리를 하면서 갈하지 않으면 태음병에 속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태음의 장인 비가 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비장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사역탕 등속이 적당할 것입니다 (自利不渴者, 屬太陰, 以其藏有寒故也. 當溫之, 宜服四逆輩)

이것은 太陰이 脾藏에서 일어난 內寒으로 병된 것이다. 때문에 사역탕류로 溫脾해야 한다고 말했다. 太陰은 經絡이 濕熱로 병드는 경우도 많지만, 傷寒과 관련해 보자면 더욱 문제되는 것은 內에서 발생한 寒濕에 의한 脾氣의 손상이다. 때문에 太陰提綱은 脾藏의 寒濕을 위주로 立論되어 있다.

태음의 병됨은 배가 그득하면서 토하여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리가 더욱 심해지며 이따금 배가 아픕니다. 만일 이런 병을 공하하면 반드시 흉가가 단단히 멎히게 됩니다.(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胸下結硬.)⁴¹⁾

이것은 모두 太陰開가 寒에 병들어 津液이 수포되지 못하는 象을 보여준다. 嘔吐와 食不下는 胃口의 虛熱일 수도 있고 太陰의 藏寒일 수도 있다. 때문에 이 虛熱만을 보고 下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⁴²⁾ 下하면 胸下結硬이 된다는 것은 이른바 '病發於陰而反下之, 因作痞'⁴³⁾이다. 下에 의해 脾家の 津液을 상

40)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619. “傷寒脈浮而緩, 手足自溫者, 是爲繫在太陰. 太陰者, 身當發黃;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 至七八日大便硬者, 爲陽明病也.”

41)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68.

42) '下'는 承氣湯이나 陷胸湯 등으로 實熱을 공격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下'는 '汗'에 상대되는 용어이다. 苦寒으로 열을 내리는 방법은 모두 下法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면 虛熱이 胃口로 집중되어 心下痞證이 이루어질 것이다.

5-6일은 少陰이 병을 받는 기일이다.

소음이 병들어 토하려 해도 토하지 못하고 심중이 갑갑하여 잠을 자려고만 하던 차에 5-6일에 이르러 공하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히 하리를 하면서 같하는 것은 소음병에 속합니다. 소음이 허하기 때문에 물을 당겨 자구하려 합니다. 만일 소변의 색이 하얗다면 소음병의 형증을 다 구비한 것이 됩니다. 소변이 하얀 것은 하초가 한을 가지고 있어 수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변의 색이 하얗습니다.(少陰病,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也, 虛故引水自救. 若小便色白者, 少陰病形悉具. 小便白者, 以下焦虛有寒, 不能制水, 故令色白也.)⁴⁴⁾

이것은 少陰傷寒에 해당한다. 外寒이 陰中之至陰인 少陰에까지 미친 것은 원래 下焦에 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는 발병 초기부터 ‘脈微細, 但欲寐’ 少陰 陰樞의 象을 보이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欲吐不吐와 欲寐不寐는 寒氣에 陰樞가 상하여 陽氣가 상부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6일에 보이는 自利는 少陰의 本인 腎이 寒을 받지 않음에 따라 胃府로 한이 돌아갔음을 뜻하며,⁴⁵⁾ 渴은 少陰이 虛하기 때문이다. ‘引水自救’는 熱로 津液이 상해서 오는 大渴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이 역시 傷寒의 와중에 雜病이 끼어든 경우로 볼 수 있다. 少陰의 腎은 眞陰之藏으로서 水火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邪氣를 받아 寒으로 병될 수도 있고 熱로 병될 수도 있다. 때문에 少陰提綱은 발병 초기 미묘한 病情만을 들어 少陰 受病의 正황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한에 상하고 1-2일 내지 4-5일에 이르도록 踰량이

있던 사람은 반드시 발열이 나타납니다. 발열부터 있었던 사람은 뒤에 반드시 踰량이 나타납니다. 踰량이 심할 수록 발열도 심하고, 踰량이 미약하면 발열도 미미합니다. 이런 踰량은 의당 열을 하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한하면 반드시 입안이 붉게 문드러집니다(傷寒, 一二日至四五日而厥者, 必發熱, 前熱者, 後必厥, 厥深者, 熱亦深, 厥微者, 熱亦微. 厥應下之, 而反發汗者, 必口傷爛赤.)⁴⁶⁾

이것은 厥陰傷寒을 말한 것이다. 직접 厥陰病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凡厥者, 陰陽氣不相順接, 便爲厥. 厥者, 手足逆冷是也.”⁴⁷⁾라고 했듯이 兩陰交盡이자 陰之絶陽인 厥陰이 寒에 상하면 陰陽氣가 順接하지 못하여 특징적으로 手足厥冷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外寒에 經氣가 鬱廢되어 厥陰의 經絡에 熱이 쌓인 상태이다. 때문에 “傷寒脈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主之.”⁴⁸⁾라고 했듯이 백호탕으로 裏熱을 下하여 치료하는 것을 正法으로 보았다.

이것이 傷寒에 의한 經絡의 熱證이라면, 厥陰은 太陰과 마찬가지로 藏寒에 의해 병드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같은 厥이더라도 內寒이 있는 경우를 바로 감별했다.

손발이 싸늘하고 맥이 가늘어 끊어질 듯 하면 당귀사역탕을 위주로 치료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속에 오래도록 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귀사역탕에 오수를 더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手足厥寒, 脈細欲絕者, 當歸四逆湯主之. 若其人內有久寒者, 宜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主之.)⁴⁹⁾

厥陰提綱은 踰음 外內寒熱의 病證을 三陰 闔의 象을 따라 포괄하고 있다.

踰음의 병됨은 소갈이 나타나고 기가 위로 심을 쳐 심중이 아프고 뜨겁습니다. 배가 고폐도 밥을 먹

43)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481.

44)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86.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36. “身之中於風也, 不必動藏, 故邪人於陰經, 則藏氣實, 邪氣入而不能容, 故還之於府, 故中陽則溜於經, 中陰則溜於府.”

46)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894.

47)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897.

48)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917.

49)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919. 이 제351조는 제350조 “傷寒脈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主之.”와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으려 하지 않으며 밥을 먹으면 회를 토합니다. 공하하면 하리가 멎지 않습니다.(厥陰之爲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衄, 下之, 利不止.)⁵⁰⁾

吐衄와 下利는 厥陰의 藏寒이 胃府를 침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消渴, 心熱의 裏熱證은 厥陰의 外熱이 經絡을 따라 心包로 상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傷寒 이후의 변화

1) 輕重과 深淺

이상은 受病期에 陰陽 開闔樞의 象을 보아 三陽三陰의 病位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傷寒에 있어 病位의 결정 못지 않게 病勢의 輕重을 가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傷寒은 사망을 초래하는 大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傷寒 이후 병세가 重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6일 이내 三陽三陰 病位의 이환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受病의 범위가 一經에 그치지 않음을 뜻하므로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둘째 經이 受病한 이후 病位가 表에서 裏로 깊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裏陰이 지탱하지 못하여 陽에서 발생한 邪熱이 陰으로 빠졌음을 뜻하므로 병이 고착되거나 위중하게 될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陰陽일 것인데, 陽氣가 바로 꺾여 三陰의 藏이 寒을 받으면 구할 길이 없을 것이므로 回陽救逆이 急務일 것이다. 陽氣가 寒에 점차 밀려나면서 邪熱의 結聚가 시작되면 津液의 保存이 急務일 것이다.

2) 兩感傷寒과 合病

兩感傷寒은 「熱論」에 보이듯이, 表裏가 되는 陰陽이 동시에 受病하는 현상으로서 傷寒 이후 6일에 환자가 사망하는 위중한 熱病이다.⁵¹⁾

50)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880.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117. “兩感於寒者, 病一日, 則巨陽與少陰俱病, 則頭痛口乾而煩滿; 二日, 則陽明與太陰俱病, 則腹滿身熱, 不欲食譫言; 三日, 則少陽與厥陰俱病, 則耳聾囊縮而厥. 水漿不入, 不知人, 六日死.”

한에 상하고 첫날에 太陽이 병을 받았습니다. 만일 맥에 변동이 없다면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토하려 한다거나 조변 증상이 나타나고 맥이 삭급하면 전하는 것입니다.(傷寒一日, 太陽受之, 脈若靜者, 爲不傳; 頗欲吐, 若躁煩, 脈數急者, 爲傳也.)⁵²⁾

여기서 欲吐와 心煩은 少陰傷寒에서 보이는 ‘欲吐不吐, 心煩但欲寐’와 마찬가지로 少陰 受病의 정황을 보여준다. 그런데 煩이 먼저 나타나지 않고 躁에 煩이 뒤따르는 것은, “少陰病, 吐利, 躁煩, 四逆者, 死.”⁵³⁾의 예에서 보이듯이 少陰의 眞陽이 欲奪함을 뜻하므로 吐利가 交作하면 6일 내로 환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少陰의 眞陰이 不固하여 邪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래로 傷寒을 大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치명적인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熱論」에서,

대체 지금의 열병이란 것은 다 傷寒의 따위입니다.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죽는 경우는 모두 6-7일이 기준입니다.(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或愈或死, 其死皆以六七日之間.)

라고 하여, 6-7일을 고비로 死生이 갈린다고 한 것 역시, 「傷寒論」과 맥을 같이한다. 傷寒 이후 초기에 兩感의 조짐이 보인다면 邪熱에 의해 眞陰이 고갈되기 이전에 서둘러 表陽을 溫散으로 구하는 것이 상책이고, 邪熱이 結聚된 이후에 攻下하는 것은 眞陰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책이다. 「熱論」에서 “其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라고 치료의 대강을 제시한 것 역시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경우가 陰陽合病에 해당된다면, 『상한론』에 보이는 ‘太陽與陽明合病,⁵⁴⁾ ‘太陽與少陽合病,⁵⁵⁾ ‘陽

52)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181.

53)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806.

54)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 264, 266, 276. “太陽病與陽明合病者, 必自下利. 葛根湯主之. 太陽與陽明合病, 不下利, 但嘔者, 葛根加半夏湯主之. 太陽與陽明合病, 喘而胸滿者, 不可下, 宜麻黃湯主之.”

55)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581. “太陽與少陽合病, 自下利者, 與黃芩湯; 若嘔者, 黃芩

明與少陽合病',⁵⁶⁾ 三陽合病⁵⁷⁾은 兩陽合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三陽 사이의 合病만을 말한 것은 眞陰이 손상되기 전에 구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마황탕과 갈근탕의 溫散, 황금탕과 백후탕의 淸解, 대승기탕의 攻下에 의한 치법 역시 이런 淸熱을 반영하고 있다.

3) 轉屬과 併病

兩感이나 合病이 受病 당시부터 合病이라면 轉屬은 三陽三陰 受病 이후에 病位가 轉換되는 현상이다. 『傷寒論』에는 轉屬과 轉繫 그리고 轉入이 보인다. '屬'은 病位가 어느 經에 소속됨을 확정하는 용어이므로 轉屬은 病位가 전환되어 완전히 他經에 소속되었음을 뜻한다. '繫'는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서 一經과 一經 사이에 病位가 어중간하게 끼어 있음을 뜻한다.⁵⁸⁾ 轉入은 한 조문이 보이는데, 病位가 전환되어 병이 表部에서 裏部로 들어갔음을 뜻한다.

원문을 검토해 보건대, 轉屬은 太陽의 熱이 表에서 陽明의 胃府로 향하고,⁵⁹⁾ 轉入은 太陽의 熱이 表

에서 少陽의 脇部로 들어가며,⁶⁰⁾ 繫在는 太陽에서 陽明 사이에 끼어 있다.⁶¹⁾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轉'이 일어나는 병은 본래 太陽을 본으로 陽明 또는 少陽과의 併病일 가능성이 크다. 제48조는 "二陽併病, 太陽初得病時, 發其汗, 汗先出不徹, 因轉屬陽明, 續自微汗出, 不惡寒."이라고 하여, 원래 併病으로 출발했음을 지적했다. 또 185조 "本太陽初得病時, 發其汗, 汗先出不徹, 因轉屬陽明也."라고 하여, 애초에 太陽病이었을 때, 즉 陽明으로 病位가 전환되지 않았을 때를 말함으로써 併病을 암시했다.

4) 陽去入陰

'陽去入陰'은 병이 陽을 떠나 陰으로 들어갔음을 말한다.

한에 상하고 6-7일에 대열이 없는데 그 사람이 조번 증상이 있으면 이것은 邪熱이 양을 떠나 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傷寒, 六七日, 無大熱, 其人躁煩者, 此爲陽去入陰故也.)⁶²⁾

'陽去入陰'의 陰은 表의 이면으로서 裏를 말한다. 三陰은 三陽의 裏面으로서, 經絡을 表로 藏을 裏로 갖으며 腹部를 운행한다. 三陽은 三陰의 表面으로서, 皮毛肌腠를 表로 府를 裏로 갖으며 胸中을 운행한다. 『傷寒論』에서 '入'이라는 말의 쓰임을 조사해 보면 胃, 血室, 膀胱, 胸, 膈 등의 구체적인 身形의 分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三陽도 각기 身形에서 이면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⁶³⁾

加半夏生薑湯主之."

56)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39. "陽明少陽合病, 必下利, 其脈不負者, 順也; 負者, 失也. 互相克賊, 名爲負也. 脈滑而數者, 有宿食也, 當下之, 宜大承氣湯."

57)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 677, 678, 761.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譫語遺尿. 發汗則譫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厥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 三陽合病, 脈浮大, 上關上, 但欲眠睡, 合日則汗."

58) 病位가 陽明과 太陰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에 '繫在'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59)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p. 301-302. 轉屬을 말하는 조문은 傷寒論에 모두 4개가 보인다. 모두 太陽에서 陽明으로의 轉屬을 말하고 있다. "二陽併病, 太陽初得病時, 發其汗, 汗先出不徹, 因轉屬陽明."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610. "問曰: 何緣得陽明病? 答曰: 太陽病發汗, 若下, 若利小便, 此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60)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616. "本太陽初得病時, 發其汗, 汗先出不徹, 因轉屬陽明也. 傷寒發熱無汗, 嘔不能食, 而反汗出濺濺然者, 是轉屬陽明也."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720. "太陽病, 寸緩, 關浮, 尺弱, 其人發熱汗出, 復惡寒, 不嘔, 但心下痞者, 此以醫下之也. 如其不下者, 病人不惡寒而渴者, 此轉屬陽明也."

60)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759. 轉入을 말한 것은 本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 尚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하나이다.

61)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619. 繫在를 말한 것은 둘이 있다. "傷寒脈浮而緩, 手足自溫者, 是爲繫在太陰. 太陰者, 身當發黃;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 至七八日大便硬者, 爲陽明病也."

62)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775. "傷寒, 脈浮而緩, 手足自溫者, 繫在太陰. 太陰當發身黃; 若小便自利者, 不能發黃. 至七八日, 雖暴煩下利日十餘行, 必自止, 以脾家實, 腐穢當去故也." 태음으로 가거나 양명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63)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 763.

64) 三陽三陰이 이렇게 表에서 裏로 身形을 통합하고 있음은,

‘入陰’은 삼양의 受病 이후 表에서 발생한 熱이 表를 떠나 三陽 各經의 이면이나 三陰의 裏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太陽의 熱이 表를 떠나 心下로 들어가면 心下痞證을 이루기도 하고 膀胱으로 들어가면 熱入膀胱證을 이루기도 한다. 陽明의 熱이 表를 떠나 胸中으로 들어가 結胸을 이루기도 하고 胃府로 들어가 燥屎證을 이루기도 한다. 少陽의 熱이 表를 떠나 脇部로 들어가 脇下硬滿을 이루기도 하고 膽으로 들어가 胸中煩滿을 이루기도 한다. 邪熱이 三陽을 떠나 三陰의 裏로 들어오는 경우, 太陰으로 들어가면 暴煩下利證이, 少陰으로 들어가면 口舌乾燥證이, 厥陰으로 들어가면 心中疼熱證이 나타난다.

轉屬은 表部에서 裏部로 邪熱이 들어가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陽去入陰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轉屬은 受病 범위가 一經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一經의 表에서 裏로 일어나는 入陰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병세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轉屬과 入陰을 구별하는 뜻이다.

III. 結論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고한다.

1. 傷寒이 陽氣의 손상으로 인한 병의 발생을 알리는 의미라면, 傷寒 이후 三陽三陰 各經이 寒氣를 받아 受病하는 고유의 경로가 존재한다. 傷寒 이후, 太陽病으로 發病할 수도 있고, 陽明病으로 發病할 수도 있고, 少陽病으로 發病할 수도 있다. 三陰은 外寒으로 병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유의 受病 경로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傷寒은 반드시 太陽病으로만 發病하지 않는다.

2. 三陰三陽은 表裏로 形氣를 相成하며 經氣가 人身을 一周하는 陰陽 고유의 운동형식이다. 『傷寒論』이 傷寒 이후 發病과 변화를 三陽三陰으로 立論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生命이 운동하는 본질적인 형식으로서, 邪氣는 經氣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經氣가 虛한 곳에서 병을 일으키고, 經氣가 虛해진 곳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

3. 六經提綱은 三陽三陰病 간의 횡적 차이를 분별하는 것을 위주로, 三陽三陰 各病 內에서의 表裏寒熱 虛實을 참조하여 해당 經氣의 受病을 開闔樞의 象으로 포착한 것이다.

4. 傷寒 이후 三陽이 각기 受病하는 예를 들어 보겠다. 太陽傷寒은 첫날 惡寒과 함께 脈浮, 頭項強痛의 陽開가 병든 象이 나타난다. 陽明傷寒은 둘째 날 惡寒이 自罷하고 身熱, 汗出의 陽闔이 병든 象이 나타난다. 少陽傷寒은 口苦, 咽乾, 目弦과 함께 脈弦細의 陽樞가 병든 象이 나타난다.

5. 三陰은 三陽의 裏面이므로 직접 外寒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內에서 自生한 寒을 받아 병이 드는 경우가 많다. 어찌 되었건 太陰이 寒을 받으면 腹滿吐利의 陰開가 병든 象이 나타나고, 少陰이 寒을 받으면 欲吐不吐, 脈微細, 但欲寐의 陰樞가 병든 象이 나타나고, 厥陰이 寒을 받으면 消渴, 食則吐衄의 陰闔이 병든 象이 나타난다.

6. 傷寒에 있어 三陽三陰 病位의 결정 못지 않게 病勢의 輕重을 가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傷寒 이후 병세가 가중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6일 이내 三陽三陰 病位의 이환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受病의 범위가 一經에 그치지 않음을 뜻하므로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兩感傷寒과 兩陽合病, 併病이 그것이다. 둘째 一經이 受病한 이후 病位가 表에서 裏로 깊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裏陰이 지탱하지 못하여 表에서 발생한 邪熱이 陰으로 빠졌음을 뜻하

素問·皮部論에 대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점은 傷寒論과 관련하여 柯琴 傷寒論·六經正義에 구체적으로 발명되었다. 太陽의 裏를 心으로 본 것은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원문과 부합한다. 이 장의 ‘入陰’에 대한 견해 역시 기본적으로 그의 학설에 따른 것이다.

므로 병이 고착되거나 깊어질 것이다. 轉屬과 陽去入陰이 그것이다.

사실 이 논문은 그동안 『傷寒論』을 읽으면서 부닥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기간의 생각들을 정리해 볼 요량으로 시작하였다. 때문에 각 장마다 단편적인 소견들을 정리하여 한틀에 끼워 맞추는 형식이 되고 말았다. 특히 溫病과 濕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맥을 짚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溫病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參考文獻

<단행본>

1. 朴贊國, 黃帝內經素問註釋. 서울, 集文堂, 2005.
2. 聶惠民 等編,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5.
3.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6.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6. 張機, 仲景全書. 大北, 集文書園, 中華民國 72년.